

창간호 2015

[i:n] **봄**

헬로우! 어린이박물관

_ 나는 조선의 왕이로소이다

특별한 박물관

_ 온라인 박물관

전시품 해설

_ 익산 원수리 출토 순금계불상

전시 한마당

_ 종묘

문화나눔

_ 학교+박물관이 만나다

_ 야간개장 공연소개



국립전주박물관
Jeonju National Museum





창간호 2015



'전체나 전부의' 뜻을 지닌 순우리말

'모두의'라는 뜻도 있어 박물관 구성원 구독자 모두의 잡지라는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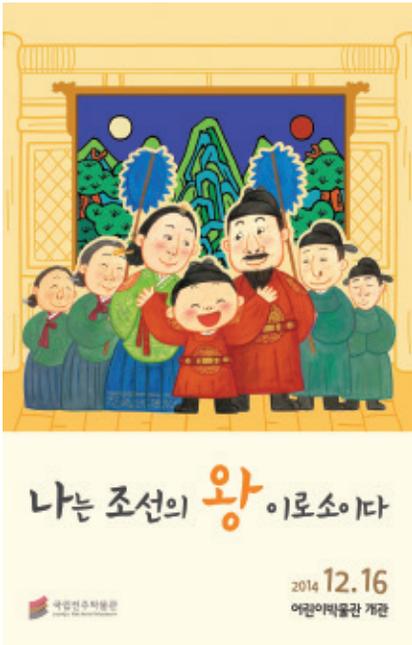
全州의 畵(온전 전)에 해당하며, 한자로 온으론 따뜻할 溫, 평온할 穩, 쌀을 藶 포함

On은 (거리적·시간적으로) '진보하여'라는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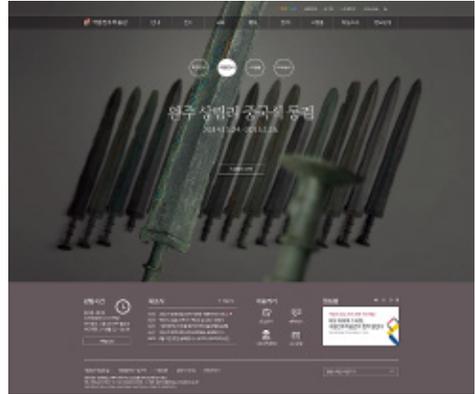
국립전주박물관에서 소식지 '온'을
창간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랑과 관심으로 참여 부탁드립니다.

국립전주박물관 소식지팀 일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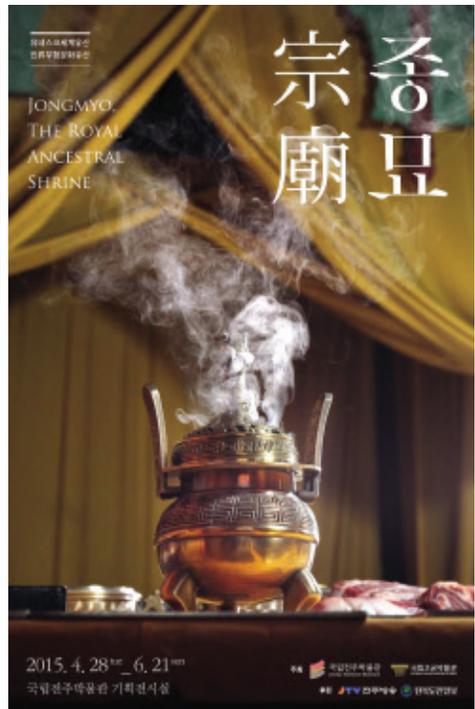
발행일 2015년 4월
발행처 국립전주박물관
디자인·제작 디자인노리
주소 560-859 전북 전주시 완산구 옥고개로 249
전화 063)220-1000
팩스 063)223-56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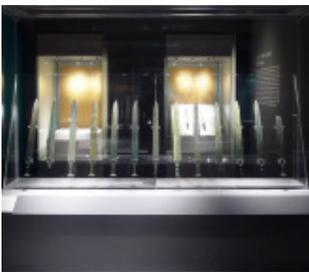
16



08



22



- 06 관장 칼럼 _ 박물관은 스토리 제작소
- 08 헬로우! 어린이박물관 _ 나는 조선의 왕이로소이다
- 14 전시품 해설 _ 익산 원수리 출토
순금제불상
- 16 똑똑한 박물관 _ 온라인 박물관
- 20 내가 찾은 박물관 _ 최명희 문학관
- 22 전시 한마당 _ 종묘
- 28 작은 유물 이야기 _ 제각기 달라도 하나였던
삼국의 문화
- 30 문화나눔 _ 학교와 박물관이 만나다
_ 야간개장 공연소개
- 36 옛날 사진 이야기 _ 하늘에서 내려다본 오목대
- 38 박물관 사람들 _ 이나경 학예연구사
- 42 박물관 소식
- 43 박물관 풍경
- 44 문학작품 속 음식 이야기 _ 오모가리탕
- 46 풀어봅시다
- 47 함께 만드는 페이지
- 48 박물관 캘린더





박물관은 스토리(story) 제작소가 되어야 한다

현대사회는 스토리텔링
(story-telling)에
목말라 있다

글 유병하

신문·방송사는 수시로 ‘재미있는 스토리의 발굴’을 강조하고 있으며, 거의 모든 자치단체도 ‘스토리를 적극 활용한 문화관광’을 주창하고 있다. 이런 추세에서 본다면 박물관은 반성할 여지가 많은 것 같다. 왜냐하면 가장 많은 스토리를 가진 곳이기 때문이다.

사실 스토리를 발굴하고 주변에 알리는 작업이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박물관이 그렇게 하지 못한 배경에는 소위 ‘교과서 속 문화재’나 ‘지정 문화재’의 영향이 컸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래서 박물관도 ‘명품 유물’ 혹은 ‘중요한 문화재’만 귀히 다루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러한 작업에 소홀해진 것임에 틀림이 없다. 사정이 이러하다보니 우리에게 익숙한 유물의 이야기만 계속 확대 재생산되고 있을 뿐이다.

그렇지만 박물관의 전시장 한 구석을 차지하고 있는 토제 등잔(燈臺)에도 많은 이야기가 숨겨져 있다. 손으로 간단하게 빚어 구웠고 기름 위에 심지가 타오르면서 검게 그을린 흔적도 그대로 남아있지만, 고대문화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왜냐하면 인간의 활동 폭을 밤까지 연장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새로운 문화적 창조의 밑거름

사실 토제 등잔 이전에 받침이 있는 등잔형토기(燈臺形土器)도 있었고, 말 등에 올려서 어둠을 물리치던 등울(燈燵)도 있었다. 하지만 6세기 무렵부터 본격적으로 토제 등잔이 사용됨으로써 진정한 조명(照明)의 시대가 열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등잔 여러 개를 목재나 금속제의 받침 위에 올려놓아 조도(照度)를 상당량 높일 수 있었고, 필요하다면 개별 등잔을 방바닥이나 탁자, 서가 위에 올려놓아 편의성도 대폭 늘릴 수 있었기 때문이다. 경주와 부여의 고대 왕궁과 사찰에 빠짐없이 토제 등잔이 출토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나무나 흙으로 만든 남근(男根) 역시 등잔처럼 고대문화를 설명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귀중한 유물이다. 하지만 이것에 대해서도 제대로 아는 이는 매우 드물 것으로 생각한다. 원래 남근은 신(神)에게 바치는 중요한 공헌물(貢獻物)이었다. 고대사회는 기본적으로 농사 이외에 전쟁과 제사가 가장 중요했다.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장정(壯丁)이 필요하였고 충분한 식량도 준비되어야 했다. 따라서 인구생산력을 증대하면서 농업생산력도 증대해 나가는 것이 필수적이었고, 그러한 바람에 적합한 종교적 상징물[symbol]이 바로 남근이었다.

각종 제사에 남근이 중요한 공헌물로 사용되었던 이유이다. 이러한 흔적은 경주 및 부여의 왕궁이나 도로, 논에서 실제 유물로 확인된 바 있다.

이렇게 등잔과 남근이 빠진 고대사회의 이해란 원래의 모습에서 한창 부족한 것임에 틀림이 없다. 그리고 이러한 사태는 박물관 직원들이 자초한 측면이 강하다. 대중의 관심을 쫓아서 국보급의 유물이나 교과서에서 다루는 유물만 포커스(focus)를 맞추다 보니 빈약한 스토리텔링으로 단조로운 전시와 교육을 하게 된 것이다. ‘문화의 주머니’를 새로운 이야기로 채워 나가기 보다는 주머니 속의 이야기만 자꾸 꺼내어 쓴 셈이다.

박물관은 이제부터라도 스토리 제작소가 되어야 한다. 전공분야의 연구를 보다 깊게 해서 새로운 이야기를 발굴할 뿐만 아니라 이것을 주변에 잘 전달해서 개개인의 문화적 소양을 높이거나 새로운 문화적 창조의 밑거름이 되도록 해야 한다.

헬로우! 어린이박물관

Hello!

Children's
Museum





나는 조선의 왕이로소이다



조선 왕실 문화를 즐겁게 경험하는
체험식 박물관 등장!

글 김은영



하하호호! 즐거운 웃음 소리와 함께 아이들과 가족이 함께 만져보고,
관찰해 볼 수 있는 이곳은 국립전주박물관 내 어린이박물관.

지난 2014년 12월 16일 '조선 왕실 문화 체험'을 주제로 어린이박물관이 문을 열었다.
국립전주박물관 어린이박물관은 '어린이들은 놀이와 경험을 통해 스스로 배운다'를 기본이념으로
어린이와 가족이 함께 우리 역사와 문화를 즐겁게 경험하고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키우기 위해
마련되었다.

어린이박물관은 주제 중심의 스토리텔링 체험공간으로, 그 주제는 '나는 조선의 왕이로소이다'
이다. 조선시대 사람들에게 왕은 어떤 존재였으며, 왕실의 중심인 왕은 어떻게 생활하였는지 등 조
선시대 왕의 이야기를 통해 자연스럽게 그 시대의 문화와 생각들을 살펴볼 수 있도록
마련하였다. 또한 조선 왕실의 본향인 전주와 관련된 체험코너를 통해 지역 문화와 정체성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체험전시는 '왕세자의 길', '나는 왕이로소이다', '왕을 이야기하다',
'왕실의 멋과 맛' 등 크게 4가지의 소주제로 구성되어 있다.



어린이박물관 구석구석 살펴보기



1부 왕세자의 길

‘왕세자의 길’에서는 왕세자가 국왕에 즉위하기 전까지의 과정을 체험해 볼 수 있다. 왕통을 이을 왕세자는 태어나면서부터 귀한 사람으로 여겨지며 3,4세부터 왕세자를 위한 교육기관에서 교육 받게 됨과 동시에 강연 등을 통해 정치에 입문하게 되었다. 강학청 천자문 익히기, 심신을 단련했던 활쏘기, 강연 애니메이션 등을 통해 왕세자 교육과정을 체험해본다. 왕세자의 하루 체험을 통해 왕세자로서 갖추어야 할 중요한 덕목인 ‘효’와 ‘예’의 중요성을 이해해 본다.

2부 나는 왕이로소이다

‘나는 왕이로소이다’에서는 하늘의 뜻을 받아 나라를 다스리는 최고 지도자인 왕이 되어 볼 수 있다. 특히, 왕을 상징하는 일월오봉도, 어보, 어진 등을 찍고, 맞추고, 그려볼 수 있다. 나라를 다스리는 근본이념인 유교에 대해서도 가족이 함께 체험해 볼 수 있다.

3부 왕을 이야기하다

‘왕을 이야기하다’에서는 500년 기록문화의 꽃인 조선왕조실록을 통해 나라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 서로 견제하였던 왕과 신하의 노력을 체험해 볼 수 있다. 실록을 보관하는 방법인 포쇄를 체험할 수 있으며, 임진왜란 때 조선왕조실록을 지켜냈던 전주사고의 의미를 되새겨 볼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다.

4부 왕실의 멋과 맛

‘왕실의 멋과 맛’에서는 왕실의 복식 문화와 음식 문화를 살펴볼 수 있다. 예를 중요시 여겼던 조선시대에 왕과 왕비의 복식에는 많은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 의복 문양에 담긴 의미 하나하나를 따라 수놓아 보고, 입어 보면서 옛사람과 지금 우리와의 생각 차이를 느껴볼 수 있도록 하였다. 왕실의 맛 코너에서는 궁중요리사가 되어 수라간에서 직접 왕의 12첩 반상을 차려볼 수 있다. 최고의 재료들로 차려진 화려한 왕의 밥상뿐만 아니라 산지에서 진상한 다양한 식재료를 살펴볼 수 있다. 어려운 백성들의 끼니를 걱정하였던 영조임금의 따뜻한 마음씨를 느낄 수 있다.

어린이박물관 100배 이용 Tip

어린이박물관 연간회원제도

어린이박물관은 어린이들과 지속적인 관계를 통해 어린이 스스로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연간회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4세부터 13세까지를 대상으로 어린이박물관에 관심 있는 누구나 회원으로 등록 가능하다. 등록방법은 어린이박물관 2층 안내데스크에서 현장 접수만 가능하며, '어린이박물관 PASSPORT'가 지급된다. 회원들은 매월 한 가지 미션을 수행하면, '어린이박물관 PASSPORT'에 스탬프를 받을 수 있다. 이와는 별도로 어린이박물관 회원들 대상으로 한 별도의 초청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PASSPORT 제시할 경우 문화상품점 10% 할인도 가능!

에듀케이터와 함께 하는 교육프로그램

어린이박물관을 다양하게 활용하려면, 어린이박물관과 연계한 교육프로그램을 살펴보는 것도 좋다. 주중에는 영유아단체를 위한 그림자연극 '병아리 그림자 놀이', 초등단체를 위한 체험활동 '일월오봉도 만들기', '왕, 왕비 복식 종이옷 만들기'가 준비되어 있다. 체험가방을 가지고 가족끼리 박물관 곳곳을 누비며 미션을 수행하는 '토요일 박물관 가족탐험대'가 마련되어 있다. 신청은 박물관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다.



전시실에서 관련된 유물을 꼭 확인해 보고 가세요.

어린이박물관은 어린이에게 자기 인생의 생애 첫 박물관일 확률이 높다.
그런 만큼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한 즐거운 경험은 단지 거기에 그치지 말아야 한다.
어린이박물관 관람 후, 호기심 가득한 아이들과 함께 전시실로 가서 조선시대의 유물을
살펴보거나 왕과 관련된 유물을 관찰해 보고 비교해 보면, 더 의미 있는 나들이가 되지 않을까.

단체가 방문할 경우

10인 이상 단체의 경우 박물관 누리집을 통해 사전예약 후 이용할 수 있다.
사전예약한 단체에 한해 체험활동에 필요한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한다.
방문 전 단체를 위한 관람 가이드를 누리집을 통해 내려 받고 미리 확인할 것.
어린이박물관 2층에는 단체를 위한 물품 보관함이 준비되어 있으니 꼼꼼하게 살피고 방문할 것!

[어린이박물관 관람안내]

운영시간 09:00~18:00 (관람 입장 마감시간 17:00)

휴관일 매주 월요일, 1월 1일 관람료 없음

개인관람은 자유관람이나, 10인 이상 단체의 경우 누리집을 통한 사전예약



익산 원수리 출토 순금제불상

글 진정환



2012년 6월 국립전주박물관은 ‘관람객이 뽑은 박물관 10대 유물’이라는 이벤트를 실시한 적이 있다. 이때 가장 인기를 끈 유물은 국보로 지정된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 사리장엄구도 아니고, 70여 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온 보물 낙수정 범종도 아니었다. 불과 5cm 밖에 되지 않는 익산 원수리 출토 순금제 불상이었다. 이 자그마한 불상이 눈길을 끈 이유는 무엇일까.

이 순금불상은 1963년 8월 6일 익산시 여산면 원수리에 살던 농부가 밭을 갈다가 발견하였다. 이 순금불상이 발견된 장소는 마을사람 사이에서 이미 독적골 절터로 알려졌던 곳이었다. 그런데 관람객이 가장 사랑하는 이 순금불상이 금은방에 팔려 금반지가 될 뻔 했다. 이 불상을 발견한 사람이 충남 논산의 한 금은방에 팔려갔다가 금값으로 여섯 돈을 쳐주겠다고 하는데 실망하고 돌아서는 찰나 순경이 이를 발견하여 무사히 남아 우리에게 전해졌다.

깨달음을 얻은 존재인 부처의 모습은 불교경전에 자세히 묘사되어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몸에서 황금빛이 난다는 내용이 있다. 경전의 내용을 충실히 따르려 한다면 황금으로 만들면 제격일 것이다. 그런데 삼국시대 이래 수많은 불상 가운데 순금으로 만든 불상은 경주 구황동 삼층석탑에서 출토된 2구와 익산 원수리 출토 순금제 불상 1구 등 3구 밖에 없다. 지금도 그렇지만 예부터 황금은 매우 귀하고 비싼 보석이라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불상은 철이나 동과 같은 금속, 나무, 흙, 돌로 만들었으며, 황금빛을 내기 위해 도금을 하였을 뿐이다.

불상은 석가모니가 깨달음을 얻을 때 취했다는 향마촉지인을 맺고 있는 것으로 보아 석가모니불상임을 알 수 있다. 특히 역삼각형 얼굴, 오른쪽 어깨 위를 살짝 걸친 옷자락, 대좌 등의 형태는 중국 원대 성행하였던 네팔과 티베트의 불교인 라마교의 불상과 유사하다.

불상의 뒷면에 ‘男 善 人 辛 丑 正 月 日 金 〇 〇’이라는 명문이 새겨져 있는데, 이로써 신축년 1월에 김모라는 사람이 발원한 불상임을 알 수 있다. 이 불상에서 원나라에 많은 영향을 끼친 티베트 불상의 모습을 볼 수 있어, 명문의 신축년은 1361년일 것으로 여겨진다.

불상 뒷면 상단에는 고리가 하나 달려 있어 눈길을 끈다. 고리에 줄을 꿰어 목걸이처럼 목에 걸든지 허리춤에 차고 다닐 수도 있었을 것이다. 고리의 존재는 원수리 금부처가 흔히 호지불 혹은 호신불이라고 일컫는 부처로, 항상 몸에 지니고 다녔던 불상이었음을 짐작케 한다.

관람객이 이 불상을 국립전주박물관 대표 유물을 꼽은 이유는 아마도 역사적 가치가 높다거나 예술성이 매우 뛰어났기 때문만은 아니었을 것이다. 어찌면 이 불상을 지닌 사람의 삶을 지켜주고 소원을 들어주었던 부처의 영험함을 느꼈던 게 아닐까.

1963년 8월 6일
익산시 여산면
원수리에 살던
농부가 밭을 갈다가
발견하였다.



익산원수리출토 순금제불상_앞



익산원수리출토 순금제불상_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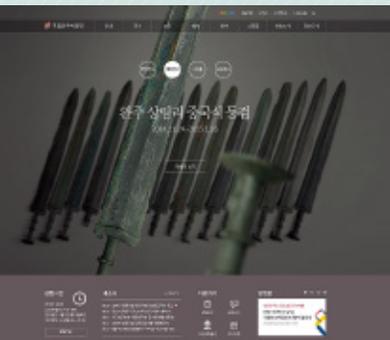


온라인 박물관

국립전주박물관은 누리집과 모바일 웹 사이트를 개편하여
2014년 12월부터 새롭게 선보인 바 있다.

이와 동시에 근거리무선통신 기술(NFC, 비콘)을 이용한 유물설명서비스와
스마트가이드 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글 이 지 속



누리집 개편



어린이박물관 사이트 신설



모바일 웹 개편

웹 접근성을 개선하고 사용자 편의성을
높여 대표 누리집(jeonju.museum.go.kr)
및 영·중·일문 페이지를 개편하고, 어린이
박물관 신설과 더불어 어린이박물관 사이
트(jeonju.museum.go.kr/children)를 별도
로 새롭게 구축하였으며, 스마트폰 사용자
의 급증에 따른 모바일 접근성이 편리하도
록 PC버전과 동기화한 모바일웹 사이트
(mjeonju.museum.go.kr)를 개편하여 서비
스하고 있다.

누리집 개편과 모
바일 웹 사이트 구
축을 통해 국립전
주박물관이 관람
객들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계기
가 될 것으로 기대
한다.

jeonju.museum.go.kr

누리집 개편과 동시에 NFC와 비콘(Beacon)을 접목한 전시안내시스템을 도입하였다.

NFC(Near Field Communication)는 10cm 이내의 가까운 거리에서 태그를 소지한 단말기끼리 정보를 주고받는 ‘근거리 무선통신’을 의미한다. 이 기능을 활용하면 물체에 장착된 태그가 서로 인식하여 보다 빠르고 간편하게 정보를 읽을 수 있게 되는데, 통신 거리가 짧아 상대적으로 보안이 우수하고 가격이 저렴하다는 게 장점이다.

현재 고대문화실, 미술공예실, 역사자료실 등 6개의 상설전시실의 대표 전시품에 NFC태그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관람객이 직접 스마트폰으로 NFC태그를 터치하면 자동으로 NFC유물해설 페이지로 이동하며, 유물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정보를 보거나 들을 수 있다.

비콘(Beacon)은 블루투스를 활용해 스마트폰 사용자의 위치를 파악, 특정 정보를 전달해주는 기술이다. 전력소모가 적어 모든 기기가 항상 연결되는 사물인터넷(IoT) 구현에 적합하다. NFC보다 가용거리가 길어 공간단위의 사용자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을 활용하여 전시실 안내 등에 활용 중이다.

유물 해설은 한국어와 영어가 제공된다. 페이스북과 트위터를 이용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공유도 가능하며 소셜댓글도 작성할 수 있다.



스마트가이드 서비스 SMART GUIDE SERVICE

[NFC 이용 방법]

- 스마트폰 환경설정 > 무선 및 네트워크 > NFC 읽기쓰기/P2P 체크
- NFC태그에 스마트폰을 접촉

삼성: 와이파이, 블루투스, NFC 읽기/쓰기 P2P, 데이터 전송, 자동 회전

LG: 와이파이, NFC, Mobile Data, Bluetooth, Rotation

※지원 스마트폰
NFC기능이 있는 안드로이드 계열 스마트폰



NFC 태그

NFC 태그 부착 모습



벽부장



독립전열장



아외전시장



NFC 유물 상세 화면

NFC 영문 정보



스마트가이드 앱 이용 안내

스마트폰의 구글 플레이 스토어 및 애플 앱 스토어에서 “국립전주박물관 스마트가이드”를 검색하여 앱을 다운로드 받으면, 국립전주박물관에 방문시 비콘(Beacon)을 통해 자동 안내된다. 블루투스 기능을 켜는 화면이 나온 후 전시실로 이동하면 각 전시실 안내 음성이 나온다.

앱은 전시실명, 대표 전시품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NFC 태그를 터치할 때와 같은 상세정보가 제공된다.

국립전주박물관 스마트가이드 앱과 함께 스마트한 관람을 즐겨보자!

- ※ 비콘(Beacon) 기능을 사용하려면, 블루투스 기능을 켜야 한다.
- ※ 안드로이드 버전 4.3 이상, iOS 8.2 이상 버전부터 사용 가능하다.



누리집

jeonju.museum.go.kr

어린이박물관

jeonju.museum.go.kr/childre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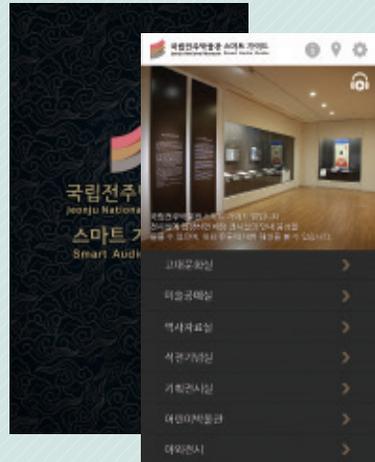
모바일

mjeonju.museum.go.kr

페이스북

facebook.com/JeonjuMuseum

스마트가이드 앱



최명희 박물관

**박물관은
소담한 돌담으로
둘러싸인 한옥
건물이다.**

글 김도연

**아름다운
세상,
잘 살고
갑니다.**

최명희문학관은 경기전 동문 담장 맞은 편 좁은 골목길에 있는 최명희의 생가 근처에 자리 잡고 있다. 연간 500만 명이 상이 찾는 전주 한옥마을 복판에 있는 만큼 관람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문학관은 소담한 돌담으로 둘러싸인 한옥 건물이다. 주요 건물은 최명희와 그의 작품세계를 조명한 전시실인 ‘독락재(獨樂齋)’와 노소동락 교학상전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공간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비시동락지실(非時同樂之室)’이라 부르는 세미나실이 있으며, 마당에는 초등학교 손글씨 공모전의 수상작품 등이 전시되어 있고, 1년 후에 자신에게 보내는 편지와 같은 체험 코너가 있다. 손편지를 주고받은 일이 특별해진 지금, 일년 후 현재와는 다른 삶을 살고 있을 자신에게 보내는 편지는 특별한 경험이 될 것이다.

1998년 12월 11일 ‘아름다운 세상, 잘 살고 갑니다.’라는 유언을 남기고 떠난 최명희. 최명희문학관은 그 아름답다던 세상의 사람들에 의해 2006년에 만들어졌다. 그는 “전아(典雅)하고, 흐드러지면서, 아름답고, 정확한 우리 모국어에 뼈와 살, 그리고 미묘한 우리 말 우리 혼의 무늬를 어떻게 하면 복원할 수 있을까.”하는 명제 아래 17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혼불』이라는 한 작품에만 매진하였다. 그의 바람대로 아름다운 모국어로 전통문화와 민속 풍습을 치밀하고 폭넓게 복원해낸 대하소설 『혼불』은 한국인의 역사와 정신을 생생하게 표현함으로써 한국문학의 수준을 한 차원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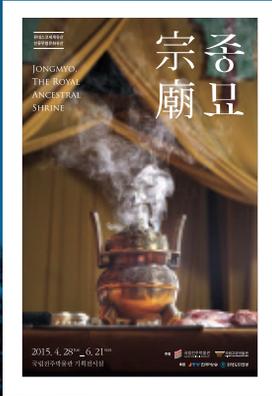
주전시실인 독락재의 독락(獨樂)은 홀로 있는 것을 조심하여야 한다는 신독(慎獨)의 경지를 넘어서 이상적인 경지에 이르렀을 때 혼자서 책 읽고 글 쓰는 것이 즐겁다는 것에서 유래한 것이다. 가히 최명희의 삶을 잘 표현한 전시실 이름이라고 할 수 있다. 독락재에는 작가의 작품, 친필원고, 친구와 주고받은 엽서와 함께 그에 대한 문단의 평가를 살펴볼 수 있으며, 특별히 최명희의 서재가 재현되어 있다.

최명희가 친구에게 보낸 엽서나 우리말의 참맛을 살리기 위해 조탁한 육필원고지를 보고 있노라면, 원고지에 펜으로 쓴 글이 아니라 컴퓨터 화면에 키보드로 쓴 글이 대신하고 스마트폰으로 쉽게 짧은 안부를 묻는 디지털시대에 대한 아쉬움이 생긴다. 최작가의 대표작인 『혼불』의 원고는 1만 2천여 장에 달한다. 그는 “원고를 쓸 때면, 손가락으로 바위를 뚫어 글씨를 새기는 것만 같은 생각이 든다. 그것은 얼마나 어리석고도 간절한 일이라. 날렵한 끝이나 기능 좋은 쇠붙이를 가지지 못한 나는 그저 온 마음을 사무치게 갈아서 손끝에 모으고 생애를 기울여 한 마디 한 마디, 파나가는 것이다.”라고 말한 바 있다. 전시된 작가의 원고지는 집필과정을 단순히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라 그 글자 수 만큼 작가의 혼이 담겨 있는 듯하다.

작가의 서재가 재현된 곳 옆에는 『최명희의 숨결을 내 손에...』라는 체험코너에 마련되어 있다. 작가의 친필 원고를 따라 쓰다 글 쓰는 사람인 양 으스스대는 마음이 들 때 즈음 ‘쓰지 않고 사는 사람은 얼마나 좋을까’라는 음성이 전시관에 울려 퍼진다. 아니 마음속에 울려 퍼진다고 하는 표현이 적절할 것이다. 창작의 무게감을 이기지 못한 작가의 푸념이지만, ‘쓰지 않고 사는 사람’에 속하는 사람들에게 따끔한 일침을 가하는 것 같아 스스로를 반성케 한다.

최명희문학관은 언어는 정신의 지문이고 모국어는 모국의 혼이기 때문에 진정한 불빛 같은 알맹이를 담고 있는 말의 씨를 심고 싶었다는 작가의 문학에 대한 열과 혼이 그대로 담긴 곳이라고 할 수 있다.





2015. 4. 28(화) ~
6. 21(일)

관람시간 오전 9:00 ~ 오후 6:00
(입장마감 오후 5:00)
매주 월요일 휴관

장 소 국립전주박물관 기획전시실

宗廟

종묘

국립전주박물관에서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20주년을 맞아 조선 왕실의 본향 전주에서 종묘전을 개최하여 종묘의 역사와 의미를 소개하고 조선과 대한 제국의 문화유산을 재인식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글 이경주



조선시대 왕과 왕비들의 신주(神主)를 모시고 제례를 거행하였던 종묘는 나라의 상징이자 국왕의 권위를 대표하는 공간이었다. 그 역사는 대한제국까지 이어졌다. 종묘는 좁게 보자면 왕가의 사당일 뿐이지만, 이곳에서 치러진 의례는 왕과 세자, 종친, 그리고 신하들이 참여하는 국가의 큰 행사였다. 이러한 의례는 왕실의 정통성을 확인하는 자리였고, 성리학적 통치 이념을 백성에게 펼치는 자리였다.

원형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는 종묘의 건축물은 1995년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으며, 종묘제례와 종묘제례악은 2001년에 ‘유네스코 인류구전 및 무형유산결작’으로 등재되었다.



경전일월 항공사진



종묘경전(여름)

'존귀한 묘'

종묘의 역사

종묘는 '존귀한 묘'라는 뜻으로, 조선의 국왕과 왕비의 신주를 모신 곳이다. 조선은 이성계 즉위 직후 성리학에 바탕을 두고 국가 의례를 정비하기 시작하였는데, 이때에 종묘가 지어졌다.

종묘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건물은 왕과 왕비의 신주를 모시고 제향 의식을 행하는 공간인 정전과 영녕전이다.

태묘라고도 부르는 정전에는 조선 건국 당시 이성계의 4대조인 목조, 익조, 도조, 환조와 왕비들의 신위를 모셨으며, 그 이후에

는 재위 당시의 4대조의 신위와 함께 공덕이 큰 왕과 왕비의 신주가 모셔져 있다. 정전은 1395년 창건 시 7칸으로 세워졌다가 1546년(명종 1)에 신실 4칸을 더하여 총 11칸으로 늘어났다. 임진왜란 때 소실되었다가 1608년(광해군 원년)에 11칸으로 복원되었고, 1726년(영조 2)에 15칸으로, 1836년(헌종 2)에 19칸으로 증축되어 세계적인 규모가 큰 목조건축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영녕전은 정전에 모시던 신주를 옮겨 모시기 위해 지은 별묘인데, 16실에 이성계의 4대조와 왕비들의 신주를 비롯하여 총 32개의 신위를 모시고 있다.



종묘 정전(正殿)에는 19개의 신실에 태조를 비롯한 왕과 왕비의 신주 49위(位)를 모셨다.

宗廟

제사를 드린다

국가에서 가장 큰 제사인 종묘 오향대제(五享大祭)에서는 고기를 담는 조(俎)와 생갓(牲筐), 땅과 물의 산물을 담는 변(籩)과 두(豆), 고깃국을 담는 등(甑)과 형(鉶), 곡식을 담는 보(簋)와 궤(簠)등이 제사상에 올려 졌으며, 신을 부르는 향과 향합, 어둠을 밝히는 촛대와 등잔 등도 함께 쓰였다.

신실에 모시다

왕과 왕비의 삼년상을 마친 뒤 신주를 종묘의 정전에 봉안하는 절차를 부묘(祔廟)라고 하는데, 왕과 왕비의 혼백은 이 과정을 통해 종묘에 신으로 모셔진 후 제사의 대상이 되었다.

신실 중앙에는 왕과 왕비의 신주를 모신 신주장(神主幟)이 있으며, 그 앞에는 제례를 지낼 때 신주를 옮겨 모시는 신탕(神榻)이 있고, 신탕 위에 궤(几)가 있다. 신주장을 중심으로 서쪽에는 죽책, 교명, 국조보감을 봉안한 책장(冊幟)을 동쪽에는 옥보와 금보 등의 어보를 봉안한 보장(寶幟)을 두었다.



신실 앞에는 노란 명주로 만든 면장(面帳)이 드리워져 있고, 각 신실 사이에는 격렴(隔簾)을 내려 공간을 구분하였다. 제례를 지낼 때에는 신실 앞에 제상(祭床)을 차리고 양쪽에는 선(扇)·개(蓋) 등의 의장(儀仗)을 세웠다.

신실 밖 준소상(尊所床)에는 다양한 종류의 술을 담은 이(彝), 준(尊), 퇴(罍) 등의 향아리를 계절에 따라 달리 놓았다.

제기 가운데에는 음식과 술을 담아 상에 진설하는 것 외에도 음식 조리를 위한 것, 손을 씻기 위한 것 등도 포함된다.

종묘제례에서는 음악과 노래 및 춤으로 구성된 종묘제례악이 연행되었다. 종묘제례악에 쓰인 음악 가운데에서는 왕의 문덕(文德)을 칭송하는 <보태평(保太平)>과 무공(武功)을 칭송하는 <정대업(定大業)>이 대표적이다. <보태평>과 <정대업>은 세종대에 우리 음악인 향악을 바탕으로 창제된 것을 세조대에 이르러 종묘제례악으로 연주된 이래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종묘 정전에서 몇돌 위의 자리 잡은 등가(登歌)와 아래에 자리 잡은 헌가(軒架)의 두 개 연주단이 절차에 따라 번갈아 가며 종묘제례악을 연주하였으며, 일무(佾舞)라고 하는 종묘제례를 위한 춤사위도 베풀었다. 연주와 노래는 장악원의 남성 연주자가, 춤은 일정한 훈련을 거친 군인이나 궁중에 속한 남성이 담당했다.



종묘제례악. 등가: 몇돌 위의 연주단, 헌가: 몇돌 아래의 연주단

宗廟

종묘와 전주

조선을 개국한 태조 이성계의 본관은 전주다. 조선 건립 직후 태조와 인연이 깊은 전주에 태조어진을 모신 진전(眞殿)이 건립되었다. 태종대인 1410년 태조어진을 모신 경기전(慶基殿)의 건립으로 전주는 조선왕실의 본향이 되었다. 영조 때에는 제왕의 본향을 일컫는 ‘풍패(豊沛)’를 따서 전주성의 남문을 풍남문이라 하였고, 전주 이씨의 시조인 이한(李翰)의 위패를 모신 조경묘(肇慶廟)를 세웠다. 고종 때에는 시조의 무덤 근처에 조경단(肇慶壇)을 세우고, 태조의 고조부인 목조(穆祖) 이안사(李安社)가 삼척으로 떠나기 전에 살았다는 이목대(梨木臺)와 이성계가 황산대첩에서 승리한 후 잔치를 벌였다는 오목대(梧木臺)에 비를 세웠다.

조선 왕실의 본향인 전주에서 ‘종묘’전을 개최하게 되었다. 전주는 여러 차례의 전란과 어려움 속에서도 태조어진과 조선왕조실록을 지켜낸 곳이다. 또한 조선시대와 대한제국시대에 왕과 황제들이 깊은 관심을 기울인 지역이기도 하다. 최고의 권위를 드러냈던 종묘와 종묘제례를 살펴볼 수 있는 이 전시를 통해 전주의 역사적 의미를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永叔大文正公
文正公遺像
文正公遺像
文正公遺像



태조어진



천마총 서조 연화도(신라)

제각기 달라도 하나였던 삼국의 문화

천마총(天馬塚)에서
출토된 채화판(彩畫板)

글 유병하

흔히 고고학자는 3D업종의 하나라고 말한다. 뜨거운 땀별 아래에서 하루 종일 굳은 땅을 파거나 쪼그리고 앉아 땀을 뻘뻘 흘리며 술집을 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지만 천만의 말씀이다. 왜냐하면 조그만 유물 하나를 통해서도 고고학자는 오랜 시간이 흐른 고대문화의 코드를 읽어낼 수 있고, 운만 좋다면 고구려·백제·신라 사이를 넘나들었던 도도한 문화의 흐름까지 읽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1973년 천마총(天馬塚)에서 출토된 채화판(彩畫板)이 그러한 유물이다. 출토상태가 좋지 않아서 유물의 전체적인 형상(形狀)이나 크기 등을 제대로 알기 어렵지만, 지금도 둥근 원판에 일정한 간격을 두고 그려진 서조도(瑞鳥圖: 상서로운 새 그림)는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얇은 자작나무 껍질을 이용하여 구획된 각각의 화면(畫面) 중심에 서조 한 마리를, 그리고 안쪽의 테두리에는 연화도(蓮花圖)를 적색·흑색의 안료(顏料)를 써서 표현하였다. 다른 색의 안료를 썼는지는 불분명하지만, 전체적으로 서조와 연화가 흰 자작나무의 색깔과 잘 어울리고 화면도 균형이 잡혀 있다.

중심의 연꽃밖에 연이어 표현된 연화도는 꽃잎이 자연스럽게 겹치면서 그 끝이 훑날리는 느낌을 주도록 그려져 있으며, 고구려 감신총

(龕神塚) 벽화고의 옆방 서벽에 그려진 연화도와 전혀 차이가 없다. 특히 연꽃의 표현기법이 같은 화공(畫工)이 그렸다고 할 정도로 유사하다. 또한 사례가 많지 않아서 직접적인 비교가 어렵기는 하지만 백제 무령왕릉의 왕비 베개나 부여 능산리 고분 벽면에 그려진 연화도를 보면 같은 제재를 가지고 표현하려고 노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서조는 두 마리 모두 두 날개를 활짝 펴고, 다리를 나란히 구부리고 있으며, 먼 방향을 응시하고 있다. 마치 고고하고 당당한 자태를 뽐내는 듯하다. 그중의 한 마리는 기린(麒麟)의 뿔처럼 장식된 것이 하나 솟아 있고, 꼬리에는 불꽃 무늬처럼, 혹은 보주(寶珠)처럼 끝이 장식되어 있다. 전체적으로 봉황(鳳凰)이 세련되게 표현된 느낌을 주지만 아직까지 벼슬을 턱 아래에 달고 있는 모습을 보면 서조의 표현이 세련되어가는 과정에 있는 것 같다. 다른 한 마리는 커다란 두 귀와 뚱뚱한 입, 긴 수염을 가지고 있다. 마치 몸체는 봉황이지만 머리는 쥐나 너구리의 형태를 하고 있다. 역시 표현기법상 일정한 진화(?) 단계에 있는 것 같다.

이러한 서조의 모습은 고구려의 고분벽화에서 무수히 찾아볼 수 있다. 예컨대 이른 시기의 것으로는 안악 3호분과 덕흥리 벽화고분을 들 수 있고, 그 외에도 평양과 집안(集安) 일대에서 5~6세기에 만들어진 수많은 벽화고분의 벽면과 천정에서 확인할 수 있다. 원래 이런 유형의 서조는 전국시대(戰國時代)부터 중국에서 유행한 - 특히 그 중심지는 한반도와 가까운 산둥지방이다 - 고대 신선사상(神仙思想)의 산물이며, 그것이 한(漢), 남북조(南北朝)를 거쳐 고구려에까지 이르러 벽화로 탄생하게 되었다.

그 이후에는 강서대묘의 사신도(四神圖)에서 보이듯이 사신신앙(四神信仰) - 즉, 음양오행사상(陰陽五行思想)에서 발전된 방위신(方位神) 혹은 수호신(守護神) 관념 - 을 모태로 완성된 형태의 서조, 즉 주작(朱雀)으로 재탄생되었다. 그리고 백제 무령왕릉의 왕비 베개에 표현된 서조의 모습도 고구려의 주작과 매우 닮았다. 특히 형상 뿐만 아니라 몸체에 베풀어진 색채의 표현기법도 매우 유사하다.

이러한 큰 흐름 속에서 본다면, 4~7세기의 고구려, 백제, 신라는 서로 다른 기풍과 문화적인 배경 하에서 성장하였지만 그 밑바닥에는 신선사상과 사신신앙이라는 사상적 기반과 그것을 물질(物的)으로 표현해 낸 서조도, 연화도를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었다. 제각기 달랐던 삼국이었지만 통일로 달려갈 수 있었던 공동의 사상과 문화도 아울러 지니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관계를 잘 보여주는 연결 고리가 6세기 초에 그려진 천마총의 서조도와 연화도이다.



강서고분의 주작(고구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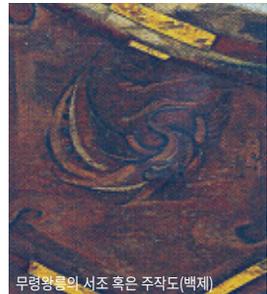
감신총의 연화도(고구려)



무용총의 서조도(고구려)



무령왕릉의 연화도(백제)



무령왕릉의 서조 혹은 주작도(백제)

톡톡 튀는 창의발상 위해 '학교와 박물관'이 만나다

올해 학교 안팎의 주요 화두는 '자유학기제'이다. 박물관은 학습자 개개인의 개성과 창의를 최대한 발현할 수 있는 비형식적인 교육기관이기도 하다. 교육부가 발표한 창의적 체험활동의 4가지 교육과정—자율, 동아리, 봉사, 진로활동—으로 박물관의 교육적 역할이 더욱 주목되고 있다.

글 김은영

국립전주박물관과 지역 초중고등학교가 2010년부터 함께 진행해온 프로그램을 사례를 살펴보고, 앞으로 박물관이 수행해야 할 박물관 창의 교육의 방향에 대해서 언급해 보겠다.

전주우림초등학교 박물관 연계학습

국립전주박물관 인근에 위치한 우림초등학교와 '박물관 연계 교육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재학 중인 모든 어린이가 1년 동안 한 번씩 박물관을 즐겁게 경험하는 활동을 하는 것이 이 활동의 주요한 목표이다.



한 한급씩 박물관과 일정을 조율하여 방문하고 있다. 활동은 각 학년마다 교과와 연계된 활동으로-5학년 청자의 이해 등-박물관과 학교 간 협의를 통해 다양한 체험활동이 이루어졌다.

박물관 활동을 마치고 돌아간 교사들은 박물관 사후활동을 교실에서 진행함으로써 아이들에게 생각과 사고를 확장시켜준다. 전주우리초등학교와 박물관 연계활동에서 시사하는 바는 현장 교사와 박물관 간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점이다.



서전주중학교 역사동아리 활동

박물관에서 이뤄지는 교육활동 계획은 대상에 대한 고민과 함께, 왜 박물관에서 꼭 이루어져야 하는 교육인가에 대한 생각에서부터 시작한다. 그래서 서전주중학교 역사동아리 활동 목표는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역사를 스스로 살펴보는 활동'으로 정했다. 우리나라 역사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배울 기회가 있지만 정작 아이들이 살고 있는 지역의 역사에 대해서는 관심이 적기 때문이었다. 체험학습활동은 '애니메이션'과정을 통해 진행되었다. 박물관에 소장하고 있는 '전주부지도'를 통해 전주의 과거를 그리고 현장에 직접 찾아가 현재의 모습을 담아 과거와 현재의 연장선상에서 자신의 가치와 역할을 생각해 보았다. 이러한 과정속에서 담아낸 결과물로 아이들 스스로 애니메이션을 완성했다. 사실 처음 박물관에서 아이들과 만남은 조금은 걱정스러웠다. '역사'라는 주제는 아직도 아이들에게 고리타분하며 즐길 수 있는 주제가 아니었다. 박물관에 모인 아이들은 동아리 선발에서 가위, 바위, 보에서 져 어쩔 수 없이(?) 모인 아이들이 대다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 학기동안 격주 토요일에 박물관 또는 현장답사에 참여하며, 박물관에 대한 즐거운 경험, 새로운 또래집단과의 만남 등을 통해 박물관에 대한 긍정적인 경험이 이뤄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중고등학생 진로체험활동

국립전주박물관에서는 박물관을 움직이는 '큐레이터'와 관련한 직업체험을 진행해왔다. 박물관·미술관하면 생각되는 직업은 큐레이터가 일반적이고 전시를 기획한다 정도로 생각한다. 하지만 박물관에는 조사, 연구에서부터 전시기획, 보존처리, 교육분야에 이르는 학예범위가 있다. 청소년들에게 각각의 분야를 경험할 수 있도록 전시기획, 토기보존처리, 교육기획 활동을 제공하였다. 문화재 복원에 필요한 기록지의 서술방법이나 저신기획을 위해 고려해야할 사항 등을 직접 확인해 보며 필요한 학문분야 등도 모둠별 발표, 토론 등의 형식으로 살펴볼 수 있는 기회였다.

함께 노력해야할 것들

학교에서 나와 박물관에서 진행되는 이러한 프로그램은 초기단계로 특정 관심 있는 교사의 요청이나 정책적 필요에 의해 진행되었던 측면이 다분하다. 그러나 에듀케이터로서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항상 던지는 질문은 '아이들의 창의적 체험활동이 왜 반드시 박물관에서 이루어져야 하는가'에 대한 것이다. 박물관은 과거의 유물을 직접 느끼며, 현재의 우리를 성찰할 수 있는 공간이다. 우리 청소년들에게 박물관이란 공간을 경험하던 혹은 유물을 재미있고 쉽게 감상하는 기회가 되던 이러한 체험활동을 통해 스스로 꿈과 끼를 발현할 수 있는 '찰나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매달 마지막 수요일

국립전주박물관이 활짝 열린다

5월 27일은 문화가 있는 날

- 01 **전시관람 시간 시간 연장** 오후 7시까지 박물관 관람이 가능
○ 관람시간 : 09:00 ~ 19:00 / 장소 : 모든 전시실 (어린이박물관 포함)
- 02 **전시유물 설명** 큐레이터의 전시유물 설명 및 질의응답
○ 시간, 장소 : 16:00 ~ 17:00 / 기획전시실
*별도의 신청 없이 현장에서 누구나 참여 가능
- 03 **영화상영** 가족 (드라마 / 15세 관람가 / 95분)
○ 시간, 장소 : 17:00 / 문화사랑방

6월 24일은 문화가 있는 날

- 01 **전시관람 시간 시간 연장** 오후 7시까지 박물관 관람이 가능
○ 관람시간 : 09:00 ~ 19:00 / 장소 : 모든 전시실 (어린이박물관 포함)
- 02 **전시유물 설명** 큐레이터의 전시유물 설명 및 질의응답
○ 시간, 장소 : 16:00 ~ 17:00 / 미술공예실
*별도의 신청 없이 현장에서 누구나 참여 가능
- 03 **영화상영** 엑스맨 :최후의 전쟁 (액션 판타지 / 12세 관람가 / 104분)
○ 시간, 장소 : 17:00 / 문화사랑방



* 자세한 내용은 국립전주박물관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영화음악

콘서트 글로리아 스트링 오케스트라



2015. 4. 18(토)
야간개장 공연

영화음악이 주는
감동과 함께 추억을
떠올려 보자



관람시간 오후 3:00, 오후 6:00 2회 공연
주 최 국립전주박물관, 우진문화재단
문의 063)220-1000

연주는 우진문화재단의 상주단체로 1981년 창단된 글로리아 스트링 오케스트라가 맡았다. 이 오케스트라는 창단 이후 매년 정기연주회와 학교순회연주, 소외지역을 찾아가는 음악회, 클래식 애호가를 위한 열린음악회 등의 기획연주회를 통하여 음악의 저변확대와 수준 높은 감상분위기를 만들어가는 전문예술단체이다.

4월 말 '전주국제영화제' 개최 기간에 앞서, 은막을 아름답게 적셨을 영화음악에 흠뻑 취해보시기 바란다.

공연 프로그램 PROGRAM

- | | |
|----------------|---|
| 01. 클래식 | [J. Pachelbel - Canon in D Major] |
| 02. 스 텡 | [S. Joplin - The Entertainer] |
| 03. 말마미아 | [Abba - The Best of ABBA] |
| 04. 레미제라블 | [C.M. Schonberg - Selections from Les Miserables] |
| 05. 시네마 천국 | [Ennio Morricone - Cinema Paradiso] |
| 06. 캐리비안의 해적 | [Hans Zimmer - Pirates of the Caribbean] |
| 07. 핑크팬더 | [Henry Mancini - Theme from "The Pink Panther"] |
| 08. 하울의 움직이는 성 | [Hisaishi Joe - 인생의 회천목마] |
| 09. 라이온 킹 | [Elton John - Selections from The Lion King] |
| 10. 겨울왕국 | [K.A. Lopez & R. Lopez - Music from FROZEN] |
| 11. 미션 임파서블 | [Lalo Schifrin - Mission: Impossible Theme] |
| 12. 수상한 그녀 | [김옥윤 - 나성에 가면] |

Fantastic Alice

포스댄스 컴퍼니



2015. 5. 16(토)
야간개장 공연

관람시간 오후 3:00, 오후 6:00 2회 공연
주 최 국립전주박물관, 우진문화재단
문의 063)220-1000

루이스 캐럴이 지은 소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는 영화, 드라마, 게임 등 다양한 분야에서 꾸준히 재창조되고 있다.

전북지역의 공연 단체인 포스댄스 컴퍼니의 '판타스틱 앨리스'는 고전에 판타스틱한 요소들을 더해 전혀 새로운 윈터랜드와 앨리스를 창조하였다. 포스댄스컴퍼니는 신체의 움직임을 통해 대중에게 즐거움을 주고 무한한 상상력을 공유하고자 2007년 설립한 단체로, 무용을 중심으로 타 장르와 지속적인 크로스 오버를 시도하고 대중과 소통하고 있다.

포스댄스컴퍼니는 자체 브랜드 공연 제작을 목적으로 판타스틱 시리즈를 제작하고 있으며, 2010년 판타스틱 뮤지엄, 2011년 판타스틱 정글, 2013년 판타스틱 앨리스, 2014년 판타스틱 아쿠아를 통해 관객과의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국립전주박물관 강당에서 펼쳐질 이번 공연을 통해 무한 상상의 세계로 빠져보시기 바란다.

공연 줄거리

신비로운 토끼의 미묘한 초대에 이끌린 앨리스는 이상한 나라로 돌아오게 된다. 신비롭고 화려함으로 가득 찬 이상한 나라, 신비롭지만 정신없는 토끼, 똥똥한 야광 고양이, 신나는 파티를 열고 싶어 하는 모자장수와 그의 친구들. 하지만 앨리스는 그들이 이상한 나라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알게 되고 사냥기로 유명하지만 우스꽝스러운 괴짜 여왕과 마주하게 되는데...



판에 박은 소리

Victor

춘향

국립민속국악원



2015. 6. 20(토)
야간개장 공연

소리판에서 창극무대로...
전설에서 기록의 시대로...

당대 최고의 판소리 명음반
"빅-터 레코드 춘향전"



관람시간 오후 6:00 1회 공연
주 최 국립전주박물관
문의 063)220-1000

명불허전인 국립민속국악원의 <판에 박은 소리 - Victor 춘향>은 1937년에 발매된 Victor판 <춘향전>을 소재로 만든 소리극이다.

Victor판 <춘향전>에는 정정렬, 이화중선, 임방울, 박녹주, 김소희 등 당대 내놓으라 하는 명창들이 나눠 소리를 한 <춘향가>가 수록되어 있는데, 소리극은 여기에 상상력을 더해 임방울, 김소희 등 당대 명창들이 불렀던 소리와 당시 녹음실에서 벌어졌을 법한 판소리에 대한 담론으로 이루어져 있다.

공연 줄거리

1937년 어느 날... 일본의 빅터 레코드사의 녹음실

창극의 전형을 일궈낸 정정렬 명창, 원숙한 절창을 들려주는 이화중선 명창, 목소리가 방울만큼 아름다운 임방울 명창, 경상도 사투리가 섞인 아니리의 박녹주 명창, 청아한 목소리의 수줍은 열아홉 김소희 명창, 이 모두의 소리는 명고한 성준의 넉넉하고 품위 있는 북장단을 딛고 신명을 낸다. 녹음의 시작과 끝을 알리는 수신호에 '판소리 춘향가'를 각자 배역에 맞춰 구성지게 소리내기 시작하고...

2015년 어느날... 음반 속 고졸한 소리가 뭉글뭉글 피어오른다.

하늘에서 내려다 본 오목대

이성계와 인연을 맺은 조선왕조의 본향

글 유병하

전주시 오목대 인근을 코로나 인공위성이 1968년에 촬영한 사진이다. 언덕의 중심은 평평하고, 그 아래에는 전주천(全州川), 한옥마을, 한벽루(寒碧樓) 등이 있다.

정상부는 1380년에 남원에서 왜구를 물리치고 한양으로 돌아가던 이성계(李成桂, 1335~1408) 장군이 승전 잔치를 베푼 곳이다. 조선왕조가 개국된 이후 오목대(梧木臺)라 하고 성지로 관리하였다.

그런데 사진을 자세히 살펴보면 동서와 남북방향으로 흠으로 쌓은 성벽이 잘 남아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성벽은 일제강점기에 발간된 <전주부사(全州府史)>에 견훤(甄萱, 867~936)이 쌓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 그 이후에도 전영래(全榮來, 1926~2011)에 의해서 후백제 도성(都城)의 일부로 주장되어 왔다. 현재 성벽 주변이나 단면이 노출된 지점에는 후백제의 것으로 보이는 기와가 많이 발견되어서 후백제 성벽의 일부로 보는 것이 타당할 듯하다.

그렇다면 오목대는 전주시의 역사적 정체성을 가장 잘 상징하는 곳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전주시는 견훤이 세운 후백제의 수도였고, 이성계와 인연을 맺은 조선왕조의 본향(本鄉)이었기 때문이다.



梧木臺



○ 오목대 - - - - 후백제 성벽으로 추정되는 곳

위성에서 내려본 오목대



국립전주박물관 학예연구사 이 나 경

Q 역사에 관심을 가진 건 언제부터였는지요?

처음 역사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는 역사 만화책 때문이었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때 부모님께서 역사만화책 시리즈를 사주셨는데 그 책이 재미있어서 반복해서 읽곤 했습니다.

그 영향으로 학교 다닐 때 사회수업이나 역사 수업도 재미있게 들었고, 역사와 관련한 대중서를 종종 읽기도 했습니다.

Q 그럼, 전공을 해야겠다는 결정은?

고등학교 1학년 말에 인문계를 갈 것인지 자연계를 갈 것인지 진로를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평소 제가 역사에 관심이 많다는 것을 알고 계셨던 담임선생님께서 ‘고고학’이라는 학문도 있다고 말씀해 주셨고, 그것을 계기로 진로를 정했습니다.

대학 때는 고고미술사학과에 입학을 해서 고고학에 대한 본격적인 공부를 시작하였고, 대학 4학년 때부터 학교박물관에 나가서 학업과 일을 병행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고구려 보루 유적 발굴 등 여러 현장에서 발굴 경험을 쌓고 그 결과물을 정리하는 보고서를 쓰는 과정에서 고고학이라는 학문에 더 흥미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취직과 진학에 대한 고민을 하던 대학 4학년 때 공부를 더 하기 위해 대학원에 진학했습니다.

Q 대학원에서는 어떤 공부를 하셨어요?

대학원에서는 고고학 이론이나 방법론, 한국의 선사~역사고고학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수업을 들으면서 폭넓은 공부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신석기시대에 대한 관심이 많았는데, 학부 마지막 학기에 “낙랑 고고학”이라는 수업을 들으면서 낙랑 토기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낙랑은 현재 평양 부근을 중심으로 있던 곳인데요, 일제 강점기에 낙랑 고분 유물이 많이 발견되었고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 유물이 많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석사 과정 때에는 “중부지역 출토 낙랑계 토기 연구”라는 주제를 정하고 여러 발굴 기관과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 중인 유물을 실견하고 관련 자료를 정리하여 졸업 논문을 작성하였습니다.

Q 고고학자라고 하면 땅을 파서 뭔가를 발굴하는 사람이 생각합니다. 직접 발굴에도 참여하신 적이 있으신지요?

발굴은 학교박물관과 발굴 기관에서 경험했습니다. 학교에서는 주로 서울, 경기지역에 분포해 있는 고구려 보루 유적의 발굴 조사를 했는데, 서울시 중랑구에 위치하고 있는 용마산 보루와 경기도 연천의 무등리 보루 유적 등의 조사에 참여하였습니다. 그 외에 전공과 관련 있는 시기의 발굴 현장에서의 경험을 쌓기 위해 외부 발굴 기관에서 원삼국시대의 패총과 한성백제시기에 만들어진 토성 발굴 조사에 참여하였습니다.



/ 궁금했나요?
유적 발굴? /

아무 땅이나 가서 파면 되나요?

유적을 조사하는 방법은 크게 지표조사, 시굴조사, 발굴조사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지표조사는 말 그대로 땅 표면에 대한 조사를 통해 유적이 존재할 가능성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발굴조사는 구제발굴과 학술발굴로 나눌 수 있는데, 지표조사 결과 유적이 존재할 가능성이 큰 지역에서 건설 공사와 같은 개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굴 또는 발굴 조사를 하여야 하는데, 이를 구제발굴이라고 합니다. 그 이외에 지표 조사 결과나 입지 등으로 볼 때 학술적으로 의미 있는 유적이 존재할 가능성이 큰 지역에 대해 발굴 신청을 하고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아 조사를 하게 되는 것을 학술발굴이라고 합니다.

유적 발굴은 누구나 할 수 있나요? 아니면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유적 발굴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등에 근거하여 이루어집니다. 연구목적이나 유적의 정비 사업을 위한 발굴, 그리고 토목공사나 건설공사를 위하여 부득이하게 발굴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 발굴 조사를 하게 되는데, 이러한 발굴조사는 조사단장이나 책임조사원, 조사원, 준조사원 등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력을 갖춘 기관만이 문화재청의 심사를 받고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습니다.

발굴된 유물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발굴이 끝나면 그 조사에서 어떤 유물이 나왔는지, 그리고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 것인지에 대해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어야겠죠. 발굴이 도굴(盜掘)과 다른 점은 그냥 땅을 파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과정에서 정확한 기록을 남긴다는 점입니다.

토층(土層)을 관찰하여 어떠한 과정으로 유적이 만들어졌는지, 그 유적의 어느 지점에서 어떠한 유물이 출토되었는지를 기록합니다. 발굴이 끝난 후에는 발굴 현장에서 가지고 온 유물을 세척, 복원, 보존처리를 하고 실측을 하여 발굴 현장에서의 기록과 더불어 보고서를 쓰게 됩니다. 보고서 작성이 끝나면 이 유물들은 '국가귀속' 절차를 거쳐 박물관 등에 들어오게 되고, 전시나 도록을 통해 많은 사람들과 만나게 되는 거죠.

Q 박물관에서 일하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학교 박물관에서 일을 할 때 발굴 조사뿐만 아니라, 그 결과물인 유물을 가지고 전시할 기회도 많았습니다. 전시를 위해 해당 유적, 유물에 대한 연구를 하게 되고, 사람들에게 더 잘 보여주기 위해서는 어떤 유물을 고르고, 그것을 어떻게 배치하는 것이 좋을까 등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전시의 즐거움을 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석사 논문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저의 관심 분야인 낙랑과 관련한 유물이 국립중앙박물관에 많이 소장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박물관에 대한 관심이 더 커졌습니다.

석사 과정을 마치고서 공부와 취직을 고민하던 차에 국립중앙박물관에서 학예사 시험 공고가 났고, 박물관에서 일을 하게 되면 전시 기회도 할 수 있고 유물을 직접 보면서 연구도 할 수 있다는 생각에 박물관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Q 국립전주박물관에 근무하시면서 가장 재미있게 일하셨던 때가 궁금합니다?

2014년에 “완주 상림리 靑銅劍” 전시를 기획할 때가 가장 기억납니다.

1975년에 완주 상림리에서 총 26점의 청동검이 발견되었는데, 그 형태가 한국에서 많이 출토되는 비파형동검이나 한국식 동검이 아니라 중국에서 주로 확인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매우 독특한 자료입니다. 평양 일대의 낙랑고분 등에서 몇 점이 나오기 했으나 한국에서는 흔하게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연구가 저조하였는데, 이번에 전시와 학술세미나를 준비하면서 상림리 청동검의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도 되었고, 청동기 공부도 많이 할 수 있어서 기억에 남습니다. 그리고 전시 준비를 하면서 완주 상림리 청동검 26점을 시각적으로 잘 표현하기 위해 유물 받침대나 색채, 조명 등에 대한 많은 고민을 할 수 있었던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 관심 있나요?

전시 that 이루어지는 과정? /

1. 기획
(주제 선정, 전시대상품 목록 작성, 전시구성 등)
2. 전시대상품 및 관련 자료 수집
3. 전시디자인 구성 (동선, 조명, 색채 등)
원고 작성(패널, 설명카드, 도록 등)
4. 전시구조물, 패널 제작 및 설치
5. 전시품 전시
6. 공개

박물관에서 근무하려면 학예사자격증이 필요한가요? 어떤 준비를 하면 될까요?

학예사 자격증은 있으면 좋습니다. 학예사를 모집할 때 학예사자격증을 필수로 요구하는 곳도 있습니다. 가산점을 주는 곳도 있고요.

박물관에서 근무하고자 하신다면, 본인의 전공에 대해 꾸준한 공부를 하거나 현장 경험을 쌓으셔야 합니다. 박물관에서 연구원으로 경력을 쌓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지요. 평소에 준비가 되어 있어야 기회가 왔을 때 잡을 수 있습니다.

전주어린이박물관 연간회원 모집

| 등록방법

현장등록

| 등록장소

국립전주박물관 내 문화체험관 2층
관람준비실 안내데스크

| 등록기간

2015년 3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 참가자격

어린이박물관에 관심 있는
어린이 누구나 (4세~13세)

| 회원혜택

어린이박물관 회원 PASSPORT 증정
- 어린이박물관 회원 대상
교육프로그램 초대
(PASSPORT 스탬프 활동 5회 이상자)
- 국립전주박물관 내 문화상품점
10% 할인

| 문 의

063)220-1015



완주 상림리 靑銅劍 도록 발간 2015. 4. 30

1975년에 발견된 완주군 상림리 출토 청동검 26점의 도면과 사진, 자연과학적 분석의 새로운 성과를 소개하고, 한반도에서 확인된 동주식동검 자료를 종합한 도록을 발간하였다. 이번 기회를 통해 완주 상림리 청동검을 둘러싼 초기철기시대 전라북도 지역의 생생한 역사를 되살려 낼 수 있기를 바란다.



보존처리 교육 워크숍 실시 2015. 3. 19

국립전주박물관에서는 (사)전라북도박물관미술관협의회 회원 기관 지원 및 협력강화를 위하여 '박물관 소장품의 보존과 환경'을 주제로 워크숍을 실시하였다.

(사)전라북도박물관미술관협의회 회원기관 큐레이터 50여 명이 참석한 이번 워크숍에서는 박물관 소장품 보존 환경 관리, 지류 문화재 보존, 금속 문화재 보존 관리 등을 교육하였다.

박물관 야경 / 야간개장(3~10월)
매주 토요일 21:00까지



오모가리탕

고향의 음식, 오모가리탕

글 진정환

'오목하다'와
'뚝배기'의
사투리인
'투가리'가
합쳐져
'오모+가리'

전주! 전주하면 첫 번째로 연상되는 단어를 말하라 한다면, 모르긴 몰라도 비빔밥, 콩나물국밥을 꼽는 이들이 많지 않을 까? 요즘 같으면 한해 500만 명이 넘게 찾는다는 ‘한옥마을’ 이 나올 성 싶기도 하지만, 이마저도 길거리 여기저기의 소문난 주전부리 때문일 것이다. 최근에 그 맛을 잃어간다고 한탄하는 이들도 많지만 여전히 한상 가득한 한정식과 빛깔 고운 비빔밥은 외지인들에게 동경의 대상이며, 콩나물국밥, 순대국밥, 막걸리도 인기가 좋은 듯하다.

고고한 선비요 풍류가객인 고하 최승범 선생은 어느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전주의 특성을 설명하면서 ‘관리는 아전만 못하고, 아전은 기생만 못하고, 기생은 소리만 못하고, 소리는 음식만 못하다.’는 전주의 고로(古老)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온 소위 사불여(四不如)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다. 전주사람들이 가졌던 전주 음식에 자부심을 가히 짐작할 수 있다.

그렇다면, 외지인이 아닌 출향(出鄕)한 전주 사람들에게 고향, 전주의 음식은 어떤 것일까.

전주 출신의 소설가 양귀자는 전라북도 홍보지인 《얼췌 전북》에 실은 <고향예찬>이라는 글에서,

학생시절 해마다 산기슭에 앉아 원고지를 메워 상을 받고 있던 다가산의 야카시아꽃 향기가 훗날 그토록이나 기승 저리게 그리울 줄은 그때 정말 몰랐었다. 버드나무 줄기 축축 늘어진 천변의 나무평상에 앉아 한 그릇씩 후딱 먹어 치우던 그

오모가리 매운탕 맛이 하도 간절해서 뒷날 서울 시내를 다 뒤지고 다닐 줄을 그때는 짐작이나 했을까.

라고 이야기 한 바 있다.

그녀의 고향의 음식, 소울 푸드는 ‘오모가리 매운탕’이었을 것이다.

지금 전주를 떠나 서울에서 근무하고 있는 필자의 ‘고향 음식’이 아쉽게도 양작가가 말한 오모가리 매운탕은 아니지만, 그에 대한 몇 가지 추억이 있다.

다가산 옆 중학교를 다닐 때, 학교 옆을 흐르는 전주천은 지금은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더럽고 냄새나는 곳이었다. 그 무렵 전주천 전체에 시뻘말로 꾸정물이 흐를 것이라는 나의 편견이 여지없이 깨진 계기는 전주천 한벽당 옆 늘어진 수양버들 사이 평상에 웅기종기 둘러앉아 매운탕을 먹는 장면을 본 이후였다. 그곳을 무슨 이유로, 어떤 친구와, 어느 때 갔는지는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지만, 그날의 풍경만은 사진의 한 장면처럼 또렷하게 남아 있다.

그 뒤에 아버지를 졸라 가보았고, 커서는 친구들과 동료들과 어울려 다녔다. 나는 여러 종류의 매운탕 가운데 살이 토실하게 올라온 메기매운탕을 주로 먹었다. 처음 갔을 때도 그러하지만 지금까지도 마음에 품고 있는 의문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식당 간판에 ‘오모가리탕’이라고 딱하니 붙여놓고도 왜 메뉴에는 없는가이다.

‘오모가리’에 대한 나의 의문은 국어사전에서도, 일본에서 온 말은 아닐까 하는 의심에서 찾아본 일본어 사전에서도 풀지 못하였다. 이제는 ‘오목하다’와 ‘뚝배기’의 사투리인 ‘투가리’가 합쳐져 ‘오모+가리’가 된 것이라고 나름의 결론을 내렸다.

예전에는 남양집, 화순집, 김제집, 한벽집이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김제집의 자취는 찾을 수 없다. 또 칠팔십년대가지만 하더라도 전주팔미(全州八味)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남천(전주천)의 모래무지로 매운탕을 끓였다고 하는데, 지금은 아쉽게도 모래무지탕은 메뉴판에서 사라져 버렸다.

작년 11월, 후백제 궁성 확인을 위한 시굴조사의 안경을 비는 고유제를 올린 후 ○○집에서 오모가리탕을 먹으며, 후백제의 실체를 밝혀보자 결의하였던 일이 떠오른다. 올해도 국립전주박물관에서는 한벽당 옆 오목대 부근의 후백제 성벽에 대한 조사를 계획하고 있다. 그런데 아쉽게도 내 머릿속에는 조사의 성과보다, 백제의 부활을 꿈꾸며 성벽 쌓던 후백제인들이 쉬는 날 천렵한 모래무지로 끓여먹었을 매운탕이 아른거린다.

아! 천년 묵은 모래무지로 끓인 매운탕은 언제나 맛볼 수 있을까.



소식지는 다 읽으셨나요?

읽어주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소식지 내용 중에서 문제를 냈습니다.

다섯 문제를 모두 맞춰주신 분 중,
추첨을 통해 다섯 분에게 박물관에서 작은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 정답은 5월 31일까지 보내주세요./

- 1 4~7세기의 고구려, 백제, 신라는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 하에서 성장하였지만, 공동의 사상과 문화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관계를 잘 보여주는 연결 고리가 6세기 초에 그려진 경주 천마총의 □□□와 □□□입니다.
- 2 조선시대 왕과 왕비의 신주를 모시고 제례를 거행하였던 곳은 어디일까요? **Hint!** 4월 28일부터 시작한 국립전주박물관의 전시 제목
- 3 1380년 남원에서 왜구를 물리치고 한양으로 돌아가던 이성계 장군이 승전 잔치를 베푼 곳은 어디일까요?
- 4 2014년 12월에 전주어린이박물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조선 왕실 문화 체험’을 내용으로 놀이와 경험을 통해 우리 역사와 문화를 즐겁게 경험하기 위해 마련된 어린이박물관의 체험전시 주제는 무엇일까요?
- 5 유적을 조사하는 방법은 크게 지표조사, 시굴조사, 발굴조사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땅 표면에 대한 조사를 통해 유적이 존재할 가능성을 알아보는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 보내는 곳 이메일 sing4u@korea.kr
(보내실 때 제목은 <박물관소식지>로 해주세요)

당첨 공고 2015. 6. 3(수) 14시에 박물관 홈페이지
(국립전주박물관 홈페이지 > 안내 > 박물관소식 > 새소식)

'준수한흐미'의 사진 속 일상

<http://jsinfo.kr/220278740927>

전주가볼만한곳 국립전주박물관_전주민속놀이체험, 전주연날리기 좋은 곳

게시일 : 2015.02.21 내용 : 2015 작은문화축전

안녕하세요~ 준수한흐미입니다.
민족의 대명절 설이 만들어준 긴~
연휴 즐겁게 보내고들 계신지요?

준수한흐미는 신정에 다녀왔던 국립전주박물관을 구정 설 명절을 맞아 다시 찾았습니다. 제사 음식 마련에 피곤이 쌓였을 노모의 어머니와 윤여사에게 차례가 끝나고 짧은 오침의 달콤한 시간을 선물해주기 위한 생각과 아이들에게 즐거운 시간을 보낼 곳을 찾던 중 여러 행사를 많이 하는 국립전주박물관에 다녀왔습니다.



도착하자마자 하늘에 날아다니는 많은 연을 보고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곳이거나 알 수 있었어요. 즐비해 있는 흰 천막에서는 여러 가지 민속놀이 체험을 할 수 있는 곳이더군요. 오랜만에 보는 절구, 지게, 장구, 널뛰기 등 여러가지의 민속놀이를 체험할 수 있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곡식을 찧거나, 빵을 때, 또는 메주를 찧거나 떡을 찧을 때 쓰는

절구도 아이들에게겐 호기심 가득~. 실제로 들어있는 메주콩들이 갈려서 나오는게 신기한지 손이 도는게 아니고 몸을 열심히 돌면서 체험을 느끼고 있습니다.



때마침, 박물관내 설치된 스피커에서 새해 맛이 무료 떡국 나눔 행사를 한다는 방송이 흘러나오구요, 금새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카오~ 무료주차, 무료입장, 무료체험, 그것도 모자라 무료 떡국까지 나눠줍니다. 올 한 해의 소원을 써서 금줄에 끼워놓았습니다. 3월 5일 정월 대보름에 달집태우기와 함께 소원을 기원하는 행사의 금줄엔 제각기 저마다의 소원이 한가득 걸려 있습니다.

3월 5일 국립전주박물관에서 달집태우기 행사가 열립니다.

남은 연휴도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문화공연

2015. 4 APR ~ 10 OCT
4~10월 매주 3번째 토요일

4. 18(토)

영화음악콘서트

오후 3:00, 오후 6:00 2회 공연



5. 16(토)

판타스틱 엘리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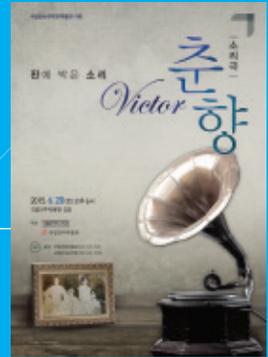
오후 3:00, 오후 6:00 2회 공연



6. 20(토)

판에 박은 소리 Victor 춘향

오후 6: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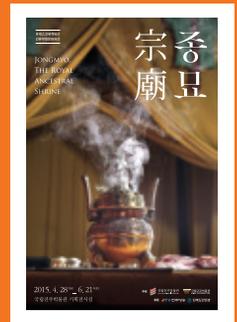


전시

4. 28(화) ~ 6. 21(일)

종묘 宗廟

오전 9:00, 오후 6:00
(입장마감 오후 5:00)
매주 월요일 휴관



7. 18(토)

타악이 말한다

'타(打) 톡(TALK)'

8. 15(토)

댄스컬

BADD-BOYZ

9. 19(토)

가을날의 트락음악회

9. 19(토)

수크라이

· 공연은 국립전주박물관 누리집
<http://jeonju.museum.go.kr>과
 · 국립전주박물관 모바일웹
mjeonju.museum.go.kr에서
 선착순 예매를 통해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10. 27(화) ~ 12. 20(일)

오월 吳越

중국 소주박물관 소장 유물 특별전

10. 27(화) ~ 12. 20(일)

석전 명품선石田 名品選

석전 황옥 작품 100여점 전시

교육프로그램

영유아단체 교육프로그램

_ 병아리 그림자 놀이

대 상 영유아 단체 30명 내외
 내 용 그림자 놀이를 통한 조선왕실의
 문양 이해와 어린이박물관에서
 창의적 활동 경험
 시 간 3. 24 ~ 5. 26 기간 중 화요일
 10:00 ~ 11:30 (90분)

참가신청 누리집을 통한 선착순 사전예약

기 타 참가비 없음

문 의 063)220-1035, 1038

학예연구실



영유아단체 교육프로그램

_ 전주어린이박물관 나들이

대 상 유초등 단체 30명 내외
 내 용 어린이박물관을 둘러보고 연계한
 만들기 활동을 통해 이해하는
 과정_일월오봉도 만들기,
 종이 인형으로 궁중 복식 만들기
 시 간 3. 27 ~ 5. 29 기간 중 금요일
 10:00 ~ 11:30 (90분)

참가신청 누리집을 통한 선착순 사전예약

기 타 참가비 없음

문 의 063)220-1035, 1038

학예연구실

2015년 교육프로그램일정

프로그램명

대상

기간

어린이박물관

병아리 그림자 놀이

영유아 단체

3~11월 사전예약 (화,수,목,금)

: 다양한 주제의 교육연극을 통해 어린이박물관 경험

전주어린이박물관 나들이

영유아 초등 단체

3~11월 사전예약 (화,수,목,금)

: 주제를 통한 4가지 체험활동 : 학제간 연계활동

토요 박물관 가족탐험대

가족동반

3~11월, 매주 (토)

: 가족이 함께 주도적인 체험기방활동을 통해 옛문화를 이해

내가 박물관 퀴즈왕

관람객 누구나

3~12월

: 어린이박물관 체험코너를 통해 매일 퀴즈주제를 선정하고 참가도록 함

심화

2015년 박물관대학 '조선의 회화'

일반인

9~11월 2, 4주 (토)

: 조선회화 이해를 돕는 강연

인문학 특강 '세계소수민족기행'

전문인/관심 있는 일반인

5~7월 2, 4주 (토)

: 소수민족의 생생한 연구자료를 바탕으로 새로운 관점의 한국 고대문화 이해 제시

제4기 전주어린이박물관학교

초등 3, 4학년

4~5월 (토)

: 문화재, 역사를 통한 학습과정

공교육연계

청소년 박물관직업체험 '큐레이터'

중고등 단체

3~11월 사전예약 (수)

: 큐레이터의 역할체험을 통해 관련한 분야 관심과 이해를 높임

수험생과 함께하는 박물관나들이	중고등 단체 : 수험생을 대상으로 우리의 예와 절을 익힘으로써 고유 정신을 이해 : 박물관 대표 유물 감상	수능 이후 사전예약
------------------	--	------------

박물관 새싹프로젝트	초등단체 : 박물관 인근 초등학교 1년에 1번 박물관 방문활동	4~11월
------------	---------------------------------------	-------

장애인

유물 오감 체험	지적장애인/시각장애인 : 촉각, 후각 등 오감을 통해 우리역사에 대해 이해	3~11월 신청일시 (화,수,목,금)
----------	--	----------------------

회화 감상	지적장애인/시각장애인 : 그룹별 이야기로 풀어나가는 우리나라 전통회화감상	3~11월 신청일시 (화,수,목,금)
-------	---	----------------------

매개자

교사워크숍	유치원교사 : 박물관과 유물을 실제 활용할 수 있는 수업모델 개발	8월
-------	---	----

대학생 자원봉사자	관련학과생 : 현장 중심의 예비전문인력양성	3~12월
-----------	----------------------------	-------

라운누리	자녀를 둔 어머니 : 자녀를 둔 어머니들의 재능기부 교육활동	3~12월
------	--------------------------------------	-------

기타

찾아가는 박물관	환아 : 즐거운 유물과 역사 체험	3~11월
----------	-----------------------	-------

장애인프로그램을 제외한 모든 교육신청은 누리집을 통해 가능합니다.

국립전주박물관 누리집 <http://jeonju.museum.go.kr/>

국립전주박물관 어린이박물관 누리집 <http://jeonju.museum.go.kr/children/>

문의 063)220-1035, 1038, 1015



국립전주박물관
Jeonju National Museum

주소 560-859 전북 전주시 완산구 축고개로 249

전화 063)220-1000

누리집 jeonju.museum.go.kr